

어머니 조국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재일동포와 조국

편입생의 《학습장》

5월 25일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통일신보》의 기자, 편집인들은 철세위인들의 열화 같은 믿음과 숭고한 동포애, 재일동포들의 고결한 애국정신으로 수놓아진 총련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돌아보며 어머니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들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쓰구는 동포애적인사를 보낸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이의 탁월한 로선전환 방침이 제시되게 되었다. 이것은 동포들의 머리에 드리웠던 절망의 짙은 구름장을 뚫고 비쳐든 은혜로운 소생의 빛이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변화된 정세와 세대가 교체되는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려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철저히 관찰할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조선대학교에는 대학에서부터 민족교육을 받는 편입생들이 더러 있다. 나는 3년간 그들의 조선어수업을 맡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새하얀 학습장과 같이 서투른 조선어 글자를 학습장에 적어가는 것과 동시에 머리속에도 《민족》을 새겨고있었다.

얼음판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차디찬 이역의 대지에 뿌려졌던 재일동포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심으로 새 재일동포들은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일하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드디어 해살도 한결 눈부시며 신록이 춤추는 5월 25일 봄처럼 출발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를 모신 우리민들이 능히 달성할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날을 얼마

나 고대하고 주춤했던가! 또한 이력사적인 전환을 저애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은 얼마나 혹심했던가! 제일 60만은 그들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자 만것이다.》 당시 《해방신문》에 대서 독립되었던 이 기사에는 공화국의 기치야말로 보람찬 애국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재일동포들의 격동과 환희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나의 목표는 첫 조국방문에서 그들이 조국인민들과 말을 주고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나의 목욕은 첫 조국방문에서 그들이 조국인민들과 말을 주고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왜 공화국을 조국으로 여겨야 합니까?》 사실 그것은 강요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방의 력사는 일제의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불우한 행렬가운데서 최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동포들이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자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45년 일제 패망당

《재일동포들의 현명한 정도 밑에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이 바람채찬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애국위업의 한걸음 거는 곳이 멀어줄수 있게 한 역적의 길이대였다.》 일찌기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역지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길 견호히 밝혀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걸음 거는 삶을 빛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시었다.

오늘도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애국지성을 바치고있다. 조직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애국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조국을 방문하였다. 막상 조국에 와보니 그는 누구보다도 흥분되었다. 《 많이 알고싶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하고 조국의 소설을 내미는 바람에 자정이 넘을 때까지 그와 함께 번역도 하였다. 그의 학습장에는 강의머참관, 토론의 내용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니시도교조선제1초등학교 소년단원들

민족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재일동포들

본시기자 전명진

지금으로부터 13년전인 2007년 2월 평양에서 진행된 2.16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서는 한 도자공예품이 미술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호로형 알록자기꽃병이었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민족문화유산인 알록반죽자기와 유관준일가

호로형 알록자기꽃병이 되었다. 근 천년만에 다시 나타난 알록반죽자기를 보며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력사의 이기속에 묻혀버린

기원료가 묻은 옷을 입고있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 형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고 알록반죽자기제조연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현대알록반죽자기를 내놓은 유관준선생은 그후 알록반죽자기제조법을 과학화하는 사업을 계속 신사하였다. 2018년 10월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알록반죽자기제조자가 자기 모든것을 깎으며 바쳐온 유관준선생과 그 일가가 걸어온 애국의 길에 대하여 적어본다.

몇점의 유물사진자료, 알록반죽자기의 창작년대, 일 반적인 몇분장의 자료... 유관준선생이 연구의 길에 들어섰을 때 알록반죽자기와 관련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였다. 자기와 관련한 옛 문헌들을 많이 연구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유망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며 손뼉을 놓고있을 때 나라에서는 그를 평양미술대학으로 불려주었다. 어릴 때부터 깎고 도롱현상과 실생활에서 편마되어온 그의 재능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한계던 더 발전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려 알록반죽자기의 제조비밀을 기어이 밝혀내리라는 각오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그는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사색과 연구를 거듭 하였다. 고려시기 도자공들은 과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성형방법으로 알록반죽자기를 만들어냈을까. 유관준선생은 일반적으로 한가지 원료로 제조한 자기와는 달리 알록반죽자기는 성분이 서로 다른 2~3가지 이상의 여러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성형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가지 원료로 자기를 제조한 예는 없습니다. 모두 한가지 소재에다가 여러가지 유약으로 그 장식효과를 나타내지만 알록반죽자기의 세가지의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장식적효과를 나타내고있습니다.》 그는 도자기교장으로 알려진 경성군의 산지들을 편답하면서 백색, 청색, 흑색 등의 색을 가진 고령토, 사질토를 비롯한 적합한 재료를 얻게 되었다.

유관준선생과 그 일가의 남다른 애국심과 창조와 정열의 산물인 현대알록반죽자기. 보편 볼수록 조형적형식이 기본으로 조형적효과를 더욱 높여 독특한 정서적미감을 연출했기나이나 인민들에게 민족적공감과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학계에서도 현대알록반죽자기를 놓고 우리 나라 도자공예의 발전면모를 더욱 풍부하고 나아가서 인류도자공예사를 빛내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되고있다. 어제나 묻혀버렸던 알록반죽자기를 되살릴 결심을 품고 그 길에 나섰던 20대 청년 유관준선생, 이제 그의 나이도 어언 70에 가까워지고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알록반죽자기제조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유관준선생은 전쟁의 불길에 타번지던 1951년에 북변의 한 란방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선원호사업을 하느라 늘 나가살다시피 하였고 만누이가 막내인 그를 등에 업고 달래곤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경성군으로 이사했다. 유관준선생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은 그에게 전기간 학습의 벽보를 맡게 하였다. 연재인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눈길을 피하여 한 미술가의 생을 그린 소설책을 몰래 읽다가 꾸중을 받은적도 있었다. 며칠후 선생님은 그의 손목을 잡고 당시에만 꽤 소문이 자욱던 경성문화회관의 미술소조로 갔다. 소조원은 15명정도였는데 그들중에는 유관준선생처럼 나이런 학생

《그 자료는 20대청춘이었던 나를 몹시 흥분시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도자공예품인가 하는 감동과 함께 내가 력사의 이기속에 묻혀있는 알록반죽자기를 꼭 되살려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알록반죽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고려자기라고 하면 누구나 청자기를 먼저 떠올릴것입니다. 그러나 고려자기에는 이 청자기뿐 아니라 완전한 독자적성을 가진 희귀한 알록반죽자기도 있었습니다. 알록반죽자기는 11세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가지 원료로 자기를 제조한 예는 없습니다. 모두 한가지 소재에다가 여러가지 유약으로 그 장식적효과를 나타내지만 알록반죽자기의 세가지의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장식적효과를 나타내고있습니다.》 그는 도자기교장으로 알려진 경성군의 산지들을 편답하면서 백색, 청색, 흑색 등의 색을 가진 고령토, 사질토를 비롯한 적합한 재료를 얻게 되었다. 1984년부터 유관준선생은 함경북도미술창작사 도자공예실(당시) 실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실장사업도 하면서 연구도 하는 것이 힘에 부치였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유관준선생은 개인미술전람회의 나날을 돌이켜 보았다. 좋은 미술작품들을 인민들속에 널리 보여주기를 위한 사업을 잘할때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교시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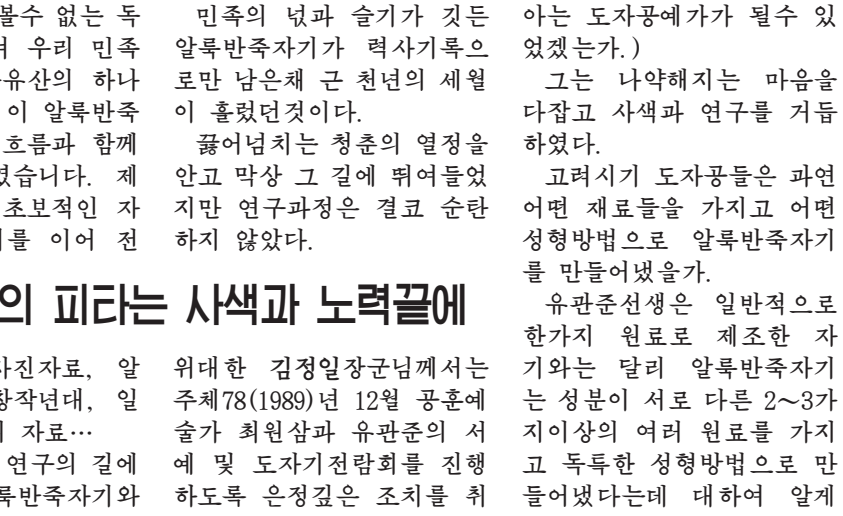
《우리 아버지는 언제 한번 작업부를 벗어본적이 없습니다. 낫에는 배낭을 메고 도자기원료와 유약재료를 찾아 산방을 오르내렸고 밤에는 소성로에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어릴적에는 항상 도자



유관준선생

고려의 귀중한 보물-알록반죽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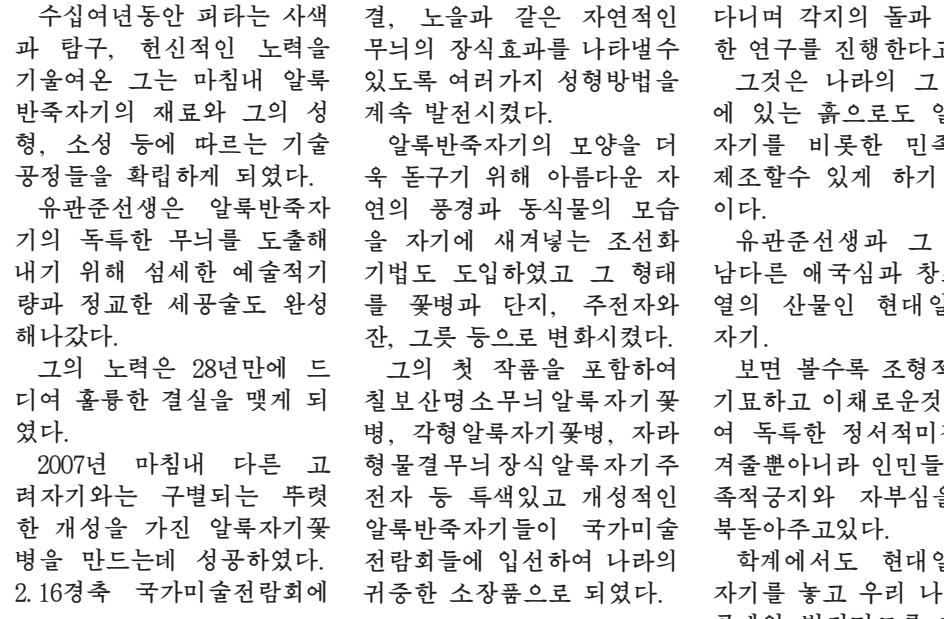
유관준선생은 전쟁의 불길에 타번지던 1951년에 북변의 한 란방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선원호사업을 하느라 늘 나가살다시피 하였고 만누이가 막내인 그를 등에 업고 달래곤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경성군으로 이사했다. 유관준선생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은 그에게 전기간 학습의 벽보를 맡게 하였다. 연재인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눈길을 피하여 한 미술가의 생을 그린 소설책을 몰래 읽다가 꾸중을 받은적도 있었다. 며칠후 선생님은 그의 손목을 잡고 당시에만 꽤 소문이 자욱던 경성문화회관의 미술소조로 갔다. 소조원은 15명정도였는데 그들중에는 유관준선생처럼 나이런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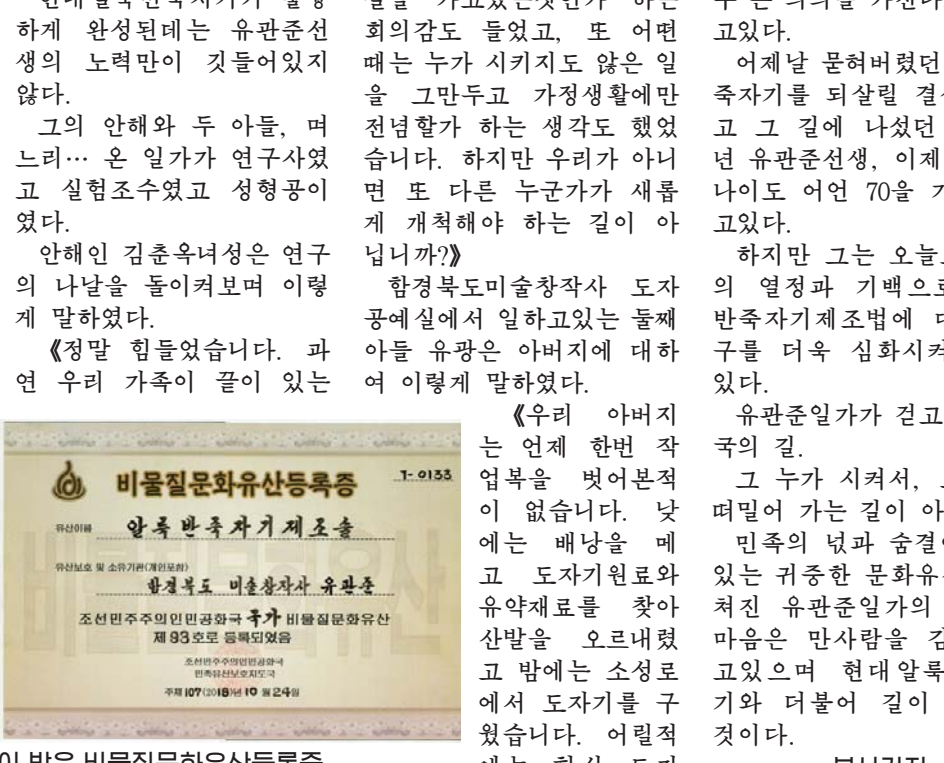
민족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재일동포들



새 작품창작에 전념하는 유관준선생의 가족과 선생이 받은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새 작품창작에 전념하는 유관준선생의 가족과 선생이 받은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새 작품창작에 전념하는 유관준선생의 가족과 선생이 받은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본시기자 김춘경